



도교불교를 요리하는 불교인들. 사진은 김승현, 김승현, 김승현

호주인 가슴에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새긴다

조계종, 시드니 '1760년 한국불교의 지혜' 행사

불교문화 체험장 2년째 다가가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 높아

대부분은 불교문화 센터에서 머물렀지만, 단체 방문객 등 체험장까지 방문한 사람들이 늘어났다. 불교문화 센터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2013년 1월 14일(수)에 개최된 '1760년 한국불교의 지혜' 행사의 일환으로, 호주인들에게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불교문화 센터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2013년 1월 14일(수)에 개최된 '1760년 한국불교의 지혜' 행사의 일환으로, 호주인들에게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세아니아주 연석사무소 개원 종단·사찰간 네트워크 강화 모색

호주 시드니 종단사무소 오세아니아주 연석사무소 개원식을 1월 14일(수)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경계 주유인사와 사찰음식 나뉘 호주 연방정부 다문화정책권도 협력

정경계 주유인사와 사찰음식 나뉘는 것은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호주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호주연방 주정부가 인정받아 "한국불교 세계화는 계속 돼야"

한국불교 세계화는 일본에서 지난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시드니 연방정부에서 "1760년 한국불교의 지혜" 행사를 주관한 조계종 총무원장 정혜승(가명)이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의 리더로 꼽히고 있다.

정혜승 총무원장은 "한국불교 세계화는 계속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불교 세계화는 일본에서 지난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시드니 연방정부에서 "1760년 한국불교의 지혜" 행사를 주관한 조계종 총무원장 정혜승(가명)이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의 리더로 꼽히고 있다."

정혜승 총무원장은 "한국불교 세계화는 계속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불교 세계화는 일본에서 지난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시드니 연방정부에서 "1760년 한국불교의 지혜" 행사를 주관한 조계종 총무원장 정혜승(가명)이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의 리더로 꼽히고 있다."



정혜승 총무원장(가명)이 연방정부에서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김승현, 김승현, 김승현

정혜승 총무원장은 "한국불교 세계화는 계속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불교 세계화는 일본에서 지난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시드니 연방정부에서 "1760년 한국불교의 지혜" 행사를 주관한 조계종 총무원장 정혜승(가명)이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의 리더로 꼽히고 있다."

■ 호주연방 한국불교의 역할

한국불교의 역할은 일본에서 지난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시드니 연방정부에서 "1760년 한국불교의 지혜" 행사를 주관한 조계종 총무원장 정혜승(가명)이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의 리더로 꼽히고 있다.

한국불교의 역할은 일본에서 지난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시드니 연방정부에서 "1760년 한국불교의 지혜" 행사를 주관한 조계종 총무원장 정혜승(가명)이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의 리더로 꼽히고 있다.

한국불교의 역할은 일본에서 지난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시드니 연방정부에서 "1760년 한국불교의 지혜" 행사를 주관한 조계종 총무원장 정혜승(가명)이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의 리더로 꼽히고 있다.

한국불교의 역할은 일본에서 지난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시드니 연방정부에서 "1760년 한국불교의 지혜" 행사를 주관한 조계종 총무원장 정혜승(가명)이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의 리더로 꼽히고 있다.

한국불교의 역할은 일본에서 지난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시드니 연방정부에서 "1760년 한국불교의 지혜" 행사를 주관한 조계종 총무원장 정혜승(가명)이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의 리더로 꼽히고 있다.